

4부

울곡과 관련된 이야기





울곡리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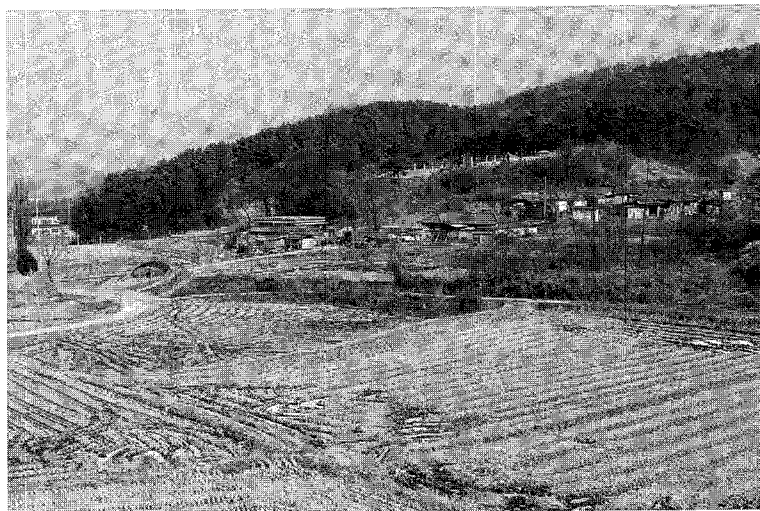
울곡의 본가가 있는 마을은 노추산에 밤나무가 많다고 해서 ‘울곡리’로 불리는데, 이이의 호 ‘울곡’도 여기서 따온 것이다. 그런데 노추산에 밤나무가 많게 된 것은 울곡과 한 스님의 인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 일화는 다음과 같다.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강릉에서 성장하고 있던 울곡이 다섯 살이 되던 무렵의 어느 날 한 스님이 오죽헌을 찾아왔다. 이 집 저 집 돌면서 탁발을 하던 스님에게 외할머니는 쌀 한 되를 시주했다.

“복 받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이 합장하고 인사할 때 당시 ‘현룡’이라고 불리던 울곡이 할머니를 부르며 뛰어왔다. 뒤로 돌아서려던 스님은 그 소리를 듣고 현룡을 쳐다보았다. 한참을 쳐다보던 스님은 할머니에게 말했다.

“참 총명해 보이는 아이로군요.”



울곡 선생의 고향 울곡리 전경

스님의 말에 외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서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주 똑똑한 아이랍니다.”

그러자 스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라를 위해서는 꼭 살아 있어야 하는데, 쫓쫓.”

혀를 차는 스님의 말에 외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스님은 다시 합장을 하며 말했다.

“저 아이는 분명 영특하지만 하늘이 가만히 놓아두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스님은 말을 마치고 벼랑을 꾸며 홀썉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이 너무 궁금했던 외할머니는 스님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외할머니는 곧 스님의 뒤를 쫓아갔다. 마을 동구 밖에서 간신히 스님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외할머니는 스님에게 다가가 말했다.

“스님, 저희 집으로 가셔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선선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가시지요.”

두 사람은 오죽현으로 돌아왔으나 스님은 한참 동안을 마당에서 놀고 있는 현룡을 쳐다볼 뿐 말이 없었다.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 저 아이를 하늘이 가만히 놓아둘까 그것이 걱정되다니요?”

외할머니의 채근에 스님이 무겁게 입을 떼었다.

“저 아이가 지나치게 똑똑하여 하늘의 천기를 해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액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침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현룡의 아버지 이원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저 아이를 위해 밤나무 천 그루를 심어야 합니다.”

밤나무 천 그루라는 말에 기가 막힌 외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밤나무 천 그루를 한꺼번에 어떻게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저 아이의 아버지가 혼자서 심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 혼자서 밤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스님의 말에 이원수가 따지듯 말했다.

“아니, 무슨 이유로 밤나무 천 그루를 심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아이의 재능을 탐낸 하늘이 호랑이를 보내 잡아갈 것입니다.”

“하필이면 밤나무여야 하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옛날 원효 대사는 압량(지금의 경산군)의 불지촌(佛地村) 북쪽에 있는 사라수(娑羅樹)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만삭이었던 원효 대사의 어머니가 울곡 골짜기의 밤나무 아래를 지날 때 산통을 느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해서 남편의 옷을 나무에 걸어 두고 그 아래서 해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밤나무를 사라수라고 불렀습니다. 사라수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부처님을 편안하게 모셨던 상서로운 나무로 이 아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원효 대사의 가피(加被)*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부처나 보살이 자비를 베풀어 중생에게 힘을 줌.



말을 마친 스님이 합장을 하고 사라지자 외할머니는 사위인 이원수에게 말했다.

“여보게, 어서 저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나. 저 스님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네.”

장모의 말을 듣고 이원수는 하인을 불러 모아 밤나무 묘목 천 그루를 구해 오도록 했다. 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나 밤나무 천 그루를 한 번에 구하는 일이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었다.

간신히 밤나무 묘목 오백 그루를 구한 이원수는 할 수 없이 나머지를 밤톨로 심기로 했다. 이원수는 오백 그루의 묘목과 오백 개의 밤톨을 가지고 하인들과 함께 파주의 본가로 갔다. 스님의 말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 모든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이원수는 혼자서 선영이 있는 뒷산에 땅을 파고 밤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이원수는 꼬박 사흘 낮 사흘 밤을 쉬지 않고 오백 그루의 밤나무와 오백 개의 밤톨을 심었다. 이원수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으나 노추산은 이로부터 원효 대사가 태어난 밤나무 계곡, 즉 을곡(栗谷)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강릉 오죽헌에 탁발승 하나가 찾아들었다. 외할머니는 정성껏 담은 쌀 한 되를 가져다 바랑에 넣어 주는 순간

그가 일 년 전에 찾아왔던 바로 그 스님임을 알아보았다.

“아니, 작년에 오셨던 스님이 아니신가요?”

“아 안녕하셨습니다까? 그래, 밤나무는 모두 심으셨나요?”

“스님의 말씀대로 더도 덜도 아닌 꼭 천 그루의 밤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밤나무를 심은 파주에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곧장 파주로 길을 떠났다. 그곳에서 스님은 땀을 흘리며 밤나무를 가꾸고 있는 이원수를 만날 수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이원수가 고개를 드는 순간 스님은 다짜고짜로 밤나무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한 그루, 두 그루……”

스님은 지팡이로 밤나무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숫자를 헤아렸다.

“구백 구십 팔, 구백 구십 구.”

하나하나 밤나무의 숫자를 헤아리던 스님의 지팡이는 마침내 땅 위에서 멎었다.

“한 그루가 모자라는군요.”

한 그루가 모자란다는 말에 이원수는 깜짝 놀라며 다시 세어 보았다. 그러나 과연 스님의 말대로 꼭 한 그루가 모자랐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분명히 오백 그루의 밤나무 묘목과 오백 개의



밤톨을 심었는데, 한 그루가 부족하다니!

그러자 스님은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이제 당신의 아이는 하늘의 것이니, 곧 하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갈 것이요.”

그때였다. 낙심했던 이원수는 땅에 떨어진 낙엽을 헤치다가 막 땅을 뚫고 솟아나오는 새싹을 발견했다.

“여기도 있습니다.”

이원수는 자신도 모르게 큰소리로 외쳤다.

“분명히 밤나무 새싹입니다.”

스님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다.

“내가 졌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순간 스님은 호랑이로 변하더니 울부짖으며 땅을 박차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로부터 울곡의 본가가 있는 이 마을은 밤나무가 많다고 하여 울곡리로 불리게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구석에서 ‘나도 밤나무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어린 나무 하나가 잎을 달고 있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호랑이로 변해 크게 울더니 도망갔다”는 얘기가 ‘나도밤나무’의 유래로 전해지기도 한다.



화석정 이야기

임진강가에 있는 화석정은 1443년(세종 25) 율곡의 5대 조부 이명신(李明晨)이 지었으며, 율곡의 증조부 이의석(李宜碩)이 증수했다. 그 후 율곡이 이를 다시 증수했다. ‘화석정’이라는 이름은,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던 당나라 때 재상 이덕유(李德裕)의 별장 평천장(平泉莊)의 기문(記文)에서 따 왔다.

화석정과 관련하여 임진왜란 당시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율곡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후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선조는 밀려오는 왜군을 피해 도성을 버리고 4월 30일 새벽 북쪽을 향하여 피난길에 나서게 된다. 그날은 마침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선조 일행은 돈의문(서대문)을 나서서 벽제역에 이르러 쉬었다가 혜음령을 넘어 밤이 되어서야 임진강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까지 선조 일행을 따라온 신하는 몇 명 되지 않았을 뿐더러 파주 목사는 도망쳐 버리고 길을 인도해야 할 장단 부사도 도망쳐 버린 상황이었다.



화석정

잠시 머물던 선조 일행이 다시 길을 떠나려고 군졸을 불러 모아도 모두가 도망가 버려 호위할 사람도 없을 지경이었다. 비가 많이 내려 강물이 불어났고, 길도 매우 질었다. 선조를 모시던 도승지 이항복이 흙탕 속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대여섯 척의 나룻배로 강을 건너는데, 서로 건너가려고 질서가 엉망이었다. 이때 이항복이 화석정에 불을 질러 그 불빛으로 길잡이를 했다. 울곡은 장차 큰 전쟁이 일어나 임금이 북으로 피난 갈 것까지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평소 화석정에 밤낮 없이 기름을 먹여 어떠한 폭우 속에서도 훤히 잘 타게 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이야기는 울곡이 십만 양병설을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임진



왜란과 함께 임금님의 피난길까지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후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된다. 임진왜란 당시 임금을 모셨던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나루를 건너서니 이미 날이 어두워 앞을 분간하기 어렵다. 임진강 남쪽 기슭에 옛 승청^{丞淸}이 있었는데, 혹시 왜적이 거기 있는 재목을 가지고 뗏목을 매어 건너올까 해서 임금의 명령으로 불을 붙여 태우니 그 불빛이 강 북쪽까지 비치어 길을 찾아 갈 수 있었다.

『선조 수정실록』 등 여러 사료에도 이와 똑같은 기록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 당시 불을 태운 것은 화석정이 아니고 나룻가에 있던 옛 승청인 것으로 보인다.

화석정은 임진왜란 때 불탄 후 80여 년간 빈터로 남아 있다가 1673년(현종 14) 이이의 증손이 복원했으나, 1950년 6·25전쟁 때 소실되었다. 현재의 화석정은 1966년 파주의 유림이 다시 복원한 것이다.



자字와 호號

울곡의 본명은 이쩌다. 울곡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 호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퇴계의 본명이 황滉이고 퇴계가 호라는 것도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본명보다 울곡이나 퇴계라는 호가 더 유명하다 보니 두 사람을 부를 때도 울곡 선생이니 퇴계 선생이니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어른을 부를 때 이름보다는 호를 부르는 것이 후학으로서 예의이며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리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호’를 어떤 깊은 의미를 담아 지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호 자체에는 별다른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황의 호 퇴계退溪는 한양에서 벼슬을 살다가 1546년(명종 1)에 낙향하여 고향 마을 근처인 토계兎溪에 양진암養眞庵을 짓고 은거할 당시에 토계를 퇴계라 고쳐 부르며 이를 자신의 호로 삼은 것이며, 이이의 호 울곡栗谷은 고향 마을인 파주 울곡리의 지명을 그대로 따 부른 것이다. 즉,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자주 머물던 동네 이름을 따서 호로 삼았던 것이다.

호는 아호雅號·별호別號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로 동양에서 사용해 왔다. 그리하여 당나라의 대표적 시인이 백李白은 이태백李太白이라는 호로, 송의 문장가 소식蘇軾은 소동파蘇東坡라는 호로 더 친숙하게 불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호의 사용이 정착된 것은, 조선 시대에 이르러 학자들 사이에 학문적 교류와 편지 교환이 일반화되면서 본명보다는 호나 자를 사용하는 것이 예의를 차리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호는 대부분 거처하는 곳이나 자신이 지향하는 뜻, 좋아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거처가 바뀔에 따라 호를 달리 사용했기도 했으며, 좋아하는 물건이 여럿이면 여러 가지의 호를 사용했다.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문신 이규보李奎輔는 시·술·거문고를 좋아하여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라는 호를 사용하다가, 구름처럼 살고자 하는 있는 뜻을 표현하여 백운거사白雲居士라고 호를 바꾸기도 했다. 또한 조선의 성리학자 조식曹植의 호 남명南冥은 『장자』에 나오는 말로 노장 사상에 대한 그의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여러 가지 호를 사용한 조선 후기의 학자 김정희金正喜는, 잘 알려진 추사완당阮堂 말고도 약 500여 개가 되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주로 예술인이나 정치인이 호를 즐겨 사용하는데, 시인 김정식과 박영종은 본명보다 소월素月과 목월木月이라는



호로 훨씬 더 알려져 있다.

본명과 호 말고도 옛 사람들은 또 다른 이름인 ‘자’를 사용했다. 호가 남이 자기를 부를 때 쓰는 이름이라면, 자는 자신이 남에게 본명 대신 쓰는 이름이다. 또한 호는 자기 스스로 짓지만 자는 남이 지어 준 이름이다. 자는 관례冠禮 때 성인이 되었다는 징표로 새로 지어 주는 이름으로서 주로 어른이 그의 성품이나 장래를 고려하여 지어 주었다.

이렇게 ‘자’가 생기면 본명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윗사람에게는 자신을 실명으로 칭하지만 동년배 이하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보통 자를 사용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부를 때에도 자를 사용하지만, 손아랫사람인 경우 특히 부모나 스승이 아들이나 제자를 부를 때는 본명을 사용했다.

『논어』에서 공자는 제자 안연顔淵을 회回, 자공子貢을 사賜라 부르고 있는데, 안회의 본명이 ‘회’이고 ‘연淵’은 자였기 때문이며, 자공은 성이 단목端木이고 본명이 ‘사’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퇴계의 자는 경호景浩이며, 율곡의 자는 숙헌叔獻이다.



울곡은 어떤 벼슬을 역임했을까?

울곡이 만 29세인 1564년 7월 생원시에 장원 급제하여 처음 맡은 직책은 호조 좌랑(정6품)이었다.*

정부 부서를 오늘날에는 ‘~부’로, 조선 시대에는 ‘~조’라고 했는데, 조선 시대의 정부 부서로 모두 여섯 개의 조가 있었다. 그 서열은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순이었다. 또한 각 조의 관직 서열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장관에 해당하는 판서(정2품)가 있고, 그 아래에 참판(종2품)과 참의(정3품)가 각각 1명씩(이들을 삼당상三堂上 또는 예당禮堂이라 했다), 그 아래로 정랑(정5품), 좌랑(정6품) 등 당하관堂下官을 각각 2~3명씩 두었는데 이들을 낭관郎官이라 했다.

이렇게 볼 때 울곡의 첫 관직은 오늘날 고시 합격자가 받는 첫 직책과 마찬가지로 부서의 실무 역할(오늘날의 5급 사무관 정도)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 호조 좌랑은 정6품직이지만, 이때 울곡은 종6품이었을 것이다. 장원 급제자는 종6품으로 특별히 채용하고 2등 이하는 정7품 이하의 벼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을곡이 역임한 직책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연도	왕 재위	나이	소속	직책	직급
1564	명종 19년	29세	호조	좌랑	정6품
1565	명종 20년	30세	예조	좌랑	
1566	명종 21년	31세	사간원	정언	
			이조	좌랑	
1568	선조 1년	33세	사헌부	지평	정5품
			이조	정랑	
1569	선조 2년	34세	홍문관	교리	
1571	선조 4년	36세	의정부	검상	
			홍문관	부응교	종4품
			춘추관	편수관	정3품(당하)
			청주	목사	
1573	선조 6년	38세	홍문관	직제학	통정대부(정3품당하)
			승정원	동부승지	정3품(당상)
			춘추관	수찬관	
1574	선조 7년	39세	승정원	우부승지	정3품(당상)
			사간원	대사간	
			황해도	관찰사	종2품
1578	선조 11년	43세	사간원	대사간	정3품
1580	선조 13년	45세			
1581	선조 14년	46세	사헌부	대사헌	가선대부(종2품)
			호조	판서	자헌대부(정2품)
1582	선조 15년	47세	이조	판서	승정대부(정2품)
			형조	판서	
			의정부	우찬성	
1583	선조 16년	48세	병조	판서	종1품
			돈녕부	판사	
			이조	판서	



울곡이 맡았던 관직의 성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조선 시대의 호조는 호구戶口, 공부貢賦, 전토 및 식량과 기타 재화·경제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으니 오늘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조는 예악禮樂, 제사, 연향宴享, 외교, 학교, 과거科擧 등을 맡아 보았으니 외교부와 교육부 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조는 문관의 선임, 공훈의 사정査定, 관리 성적의 평정評定 등을 관장했으니 오늘날 행정자치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울곡은 사간원과 사헌부에도 근무했는데, 특히 사간원에서 정언正言부터 시작해서 최고 직책인 대사간에 여러 번 임명되었다. 사간원은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 당대의 정치·인사 문제 등에 대해 언론을 담당했으며, 국왕의 시종 신료로서 경연經筵·서연書筵에 참여했고, 의정부 및 6조와 함께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으며, 5품 이하 관료의 인사 임명과 법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을 행사했다 이처럼 간관의 임무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이 강직한 사람이 임명되는 자리였다. 이로 보아 당대 조정에서 울곡이 어떤 평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울곡이 홍문관과 승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친 데에서도 드러난다.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는 국왕의 비서기관이며,

홍문관은 왕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며 왕에게 정사의 옳고 그름을 논하거나 간언하는 기관이었다.

또한 율곡은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경관京官에만 머무르지 않고 백성이 삶을 꾸려 가는 현장을 관리하는 지방 행정직인 외직外職에서도 근무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륜을 쌓은 율곡 이기에 호조 판서, 병조 판서, 형조 판서, 이조판서 등의 막중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홉 번 장원 급제한 조선 제일의 천재, 율곡

율곡은 과거에서 아홉 번 장원 급제했다 하여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고 불린다. 과거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원을 시험을 쳐서 뽑는 제도로서 지금의 고시에 해당한다. 남들은 한 번 급제하기도 어려운 과거에서 아홉 번이나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요즘에도 입법·사법·행정 세 분야에 걸쳐 고시가 실시되고 많은 사람들이 청춘을 바쳐 공부하여 응시하지만 합격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리고 세 분야의 고시에 모두 합격하는 수재가 드물게 나오긴 하지만, 세 분야 모두에서 일등으로 합격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 그러니 율곡의 아홉 번 장원 급제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서, 그를 조선 제일의 천재라 칭할 만하다.

율곡은 1548년(명종 3) 13세의 나이에 진사 초시에서 장원 급제한 후 21세 때인 1556년(명종 11)에 성균관에서 열린 알성문과에서 장원 급제했으며, 23세 때인 1558년(명종 13)에 겨울 별시에서 「천도책」으로 장원 급제했다. 마지막으로 29세 때인 1564년(명종 19)에 문과의 초시·복시·전시에 모두 장원으로 합격하여 ‘삼장(三場) 장원’

으로 불렸으며, 또 그해 생원시에 장원하고 이어 진사시에 고등으로 합격했다. 율곡이 생애에 걸쳐 장원을 차지한 것이 모두 아홉 번이었으므로 ‘구장 장원’, ‘구도 장원’한 것이다.

시험 종류		시험 회수	시행	해당 율곡의 나이
구분	세분			
소과	생원과	초시	3년마다 한 번	29세 장원
		복시		29세 장원
	진사과	초시		13세 장원, 29세 장원
		복시		21세 장원, 29세 급제
대과		초시	3년마다 한 번	29세 장원
		복시		29세 장원
		진시		29세 장원
특별시	별시	초시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23세 장원
		복시		

여기서 조선 시대의 문관 시험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조선 시대 문관을 채용하는 과거 시험은 사마시(司馬試) 또는 생진과(生進科)라고 하는 소과(小科), 문과로 통칭되는 대과(大科)(또는 명경과)가 있었다. 소과는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뽑는 시험으로, 소과에 합격해야만 성균관에 진학할 수 있었으며 대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소과는 시험 과목에 따라 생원과(명경과)와 진사과(제술과)로 나뉘는데, 과별로 700명씩을 선발했다. 이것이 초시(初試)다. 이렇게



초시에 합격한 이들이 한양에 모여 복시(覆試)를 치렀는데, 과별로 100명씩 뽑아 이들에게 생원 내지 진사의 칭호를 주었다.

대과는 소과에 급제한 진사와 생원, 하급 관리, 성균관 유생이 응시했으며, 최종 합격자는 예조에서 복시를 거쳐 33명을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전시(殿試)임금 앞에서 실시하는 시험(시합)을 보아서 성적순으로 갑과에 3명, 을과에 7명, 병과에 23명을 급제시켰다. 따라서 문과의 경우, 생진 초시→생진 복시→문과 초시→문과 복시→문과 전시의 단계를 밟아 중급 이상의 관리로 등용되었다.

대과와 소과 시험은 식년시(式年試)라고 하여 3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초시는 범띠, 원숭이띠, 뱀띠, 돼지띠 해의 가을에 실시했고, 복시는 쥐띠, 염소띠, 토끼띠, 닭띠 해의 봄에 치렀다. 식년시는 그해 1~5월에 시행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농번기와 겹치는 이유로 생원 또는 진사의 초시는 식년 전해 8월 15일 이후에, 대과 초시는 같은 해 9월 초순에 각각 실시했다. 생원과 진사의 복시와 대과 복시는 식년의 2월과 3월에 각각 실시했다. 조선 시대의 식년 문과는 총 163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정기적인 식년시 이외에 부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인 증광시(增廣試), 별시(別試), 알성시(謁聖試) 등이 있었다. 증광시는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가 보는 시험, 알성 문과는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보는 시험, 별시(別試)는 특별한 일을 계기로 해서 보는 시험을 말한다.

그런데 율곡은 무엇 때문에 과거를 그렇게 많이 보았을까? 율곡은 “궁핍한 살림이라 맛난 음식으로 부모를 봉양치 못할 것이 두렵고, 또한 아버지가 간곡하게 과거에 응하라는 바람을 저버릴 수 없었네”라고 자신이 과거를 보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율곡이 과거에 집착한 것은 아니었다. 율곡은 학문에 대한 자세를 친구에게 이런 글로 전했다.

내가 어릴 적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학문하는 방법을 몰라서 노유 선생에게 찾아가서 학문을 구하였다네. 그러나 나이트 선비들이 내게 권하는 것은 과거 공부에 불과하고 구차하게 세상에 부합되는 것을 힘쓸 뿐이었다네. 어려서는 지식이 없어 세속 일이나 골몰하고 문장 격식이나 익히기를 5~6년 동안 하였다네. 성리에 관한 학문은 다시 강구하지도 못했고 과거 공부 역시 익숙하지도 못했네.

어느 날 분발해서 자신을 살펴보니 텅 빈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었네. 이에 스스로 탄식하기를 “사람이 재주가 있고 없는 것은 배우고 배우지 않은 데 달려 있고, 사람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은 행하고 행하지 않은 데 달려 있다”는 것이었네. 내가 본래 어질지도 못하고 또 배움의 자질도 부족하였으며 지난날의 공부라는 것이 겨우 과거에만 골몰했을 뿐이라네. 과거 공부에만 골몰하는 것이 어찌 배우는 자세의 부지런함만 같겠는가?



울곡이 금강산에 간 까닭은?

울곡은 만 19세인 1554년 3월 금강산에 입산해서 1년 남짓 머물다가 속세로 돌아왔다. 울곡이 금강산에서 절에 머물면서 불도를 연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순수한 유학자의 길에서 벗어나 외도했다고 하여 뒷날 이를 허물 삼는 사람도 있었다.

울곡은 왜 입산했으며 그 경험은 그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울곡이 입산하기 3년 전인 1551년 5월 어머니 사임당 신씨가 4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당시 그의 나이가 16세였으니 한창 감수성 많은 소년에게 닥친 어머니의 죽음은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짐작된다. 울곡은 3년간의 시묘살이를 마치고 곧 관례를 가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금강산으로 향했다. 울곡은 입산하면서 친구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다.

‘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같이 얻어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 기르면 마음에 부림이 되고 잘못 기르면 마음이 오히려 기의 부림이 된다. 기가 부림이 되면 한 몸에 주재하는 것이

있어 성현이 되는 것도 기약할 수 있지만, 마음이 기의 부림이 되면 모든 정욕이 통솔이 없어 어리석은 미치광이를 면하기 어렵다. 옛날 사람으로 기를 잘 기른 이는 맹자 바로 그분인데, 사람으로서 이치를 궁구하고 천성을 다하려는 데 뜻을 둔 사람 이라면 이를 버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공자가 말하 되,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나 산수를 좋아한다는 것은 결코 그 숯고 흐르고 하는 것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이고 고요한 본체를 취하는 것이니,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의 기를 기르는 것이야말로 산수를 버리고서 어디 가서 그것을 구할 것이라.

율곡의 입산은 자연 속에서 기氣를 기르고자 한다는 청년다운 큰 포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율곡이 어머니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으며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연히 강남의 봉은사에 들렀다가 거기서 불교의 경전을 읽게 되었고, 거기 나온 생사관이나 불교 철학의 오묘함에 느낀 바가 있어 입산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온다. 또한 송시열은 율곡이 어려서부터 불교 서적과 노자, 장자 등 도가 계열의 책들도 읽었으며 특히 능엄경을 좋아했다는 말을 전한다. 율곡의 제자가 남긴 글에도 율곡이 어려서부터 집안에 전해 오는 불경을 즐겨 읽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불교가 율곡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편 집안의 불화도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새로 들어온 서모와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당시 율곡 아버지의 나이는 51세였으며 7남매가 자라고 있었으니 서모가 들어온 점이야 이상할 게 없다. 일반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서모는 서모대로, 남겨진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이런저런 정신적 고통과 갈등이 많았을 것이다. 특히 서모와 율곡의 만형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아서 자주 다투었는데, 그러한 점이 율곡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안겨 주었을 것이다. 『율곡 선생 별집』 잡록에 보면, 입산을 결심하고 아버지와 서모와 형에게 드리는 편지를 책갑 속에 넣어 두고서 집을 떠났는데, 그 끝에 “언제까지나 이렇게 불화가 계속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산다고 하겠습니까”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세상 사람들은 율곡이 머리를 깎았는가 하는 점이 꽤나 궁금했던 모양이다. 후에 율곡의 제자 김장생이 금강산에 있을 동안 머리를 깎고 겉모습이 변했냐고 물었더니 율곡이 대답하기를 “이미 산으로 들어간 다음에야 설사 외양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할망정 그 마음이 거기에 빠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한 것은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율곡은 머리를 깎고 불교에 귀의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먼저 율곡이 금강산에 들어간 후에도 스스로 의암(義菴)이라는 유교식 호

를 지은 것을 보면 완전히 불교에 귀의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율곡이 속세로 나오면서 스승이었던 어숙권을 찾았는데, 어숙권이 율곡이 머리를 깎았는지 궁금하여 갓을 벗어 보라고 하는데도 율곡이 벗지 않으므로 친히 벗기고 보니 늘어진 머리채가 흘러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홍명이 쓴 『기암잡록』에 따르면 이 무렵 율곡의 누이 매창이 율곡에게 “세상 사람들이 네가 머리를 깎았느니 안 깎았느니 하면서 말들이 많으니 과거장에 가서 머리를 빗으면 사람들의 의심을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자 율곡이 그 말대로 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오죽헌은 율곡의 외가인가?

율곡이 태어난 곳은 강릉의 오죽헌이다. 시집간 여성이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고 산후 조리를 할 동안 머무는 것은 지금도 흔한 일이다. 그 점에서 오죽헌에서 율곡이 태어난 것은 별로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율곡은 오죽헌에서 나서 여섯 살까지 머물다가 서울 집으로 올라왔다. 여성이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고 육년간 머문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오죽헌은 율곡의 외가이며 어머니 사임당의 친정집일까?

율곡이 태어난 오죽헌은 집안 뒤뜰에 검은 대가 많아서 그런 이름으로 부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집의 이름은 율곡의 넷째 이모의 아들, 즉 율곡의 이종사촌인 권처균의 호에서 나온 것이다. 원래 그 집의 주인은 율곡의 외할머니였으나 다섯 딸 중 넷째 딸의 아들인 권처균에게 집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당시 오죽헌의 주인은 바로 권처균이며, 그의 호를 따 오죽헌이라는 이름도

나왔던 것이다(지금까지도 오죽헌은 권씨 가문의 소유다).

오죽헌은 율곡이 태어난 곳이기 이전에 사임당도 태어나서 자란 곳이다. 그래서 오죽헌이 사임당의 친정인 것으로 알고들 있지만 사실은 친정이 아니라 외가다. 율곡의 외할아버지는 본가가 한양이므로 어머니 사임당의 친정은 한양이어야 한다.

오죽헌이 있는 곳은 사임당의 어머니 이씨의 친정집이 있던 자리다. 외할머니 이씨는 거기서 태어나 자라다가 한양 사는 신명화라는 선비에게 시집가서 결혼 직후에 시댁에 갔으나, 친정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다시 강릉에 내려와 다시는 서울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정에 그대로 눌러앉아 살았다. 즉, 율곡의 외할아버지 부부는 결혼을 하고도 외할머니는 강릉에, 외할아버지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이따끔 외할아버지가 강릉 처가에 들리는 식으로 생활한 것이다. 외할머니가 무남독녀라 그럴 수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날의 관행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죽헌에서 태어나 자란 사임당은 열아홉 살에 한양 사람인 이원수와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도 오죽헌에 그대로 머물렀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사임당의 재주를 아낀 친정 부모가 시댁으로 보내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도 있다. 사임당이 결혼 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친정아버지가 신씨가 한양 본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사임당은 3년 상례 후에 한양으로 올라가 시어머니에게 신혼례를



올렸다. 그리고도 사임당은 시댁에서 산 것이 아니라 주로 강릉에서 살면서 강릉에서 가까운 평창의 봉평(속칭 판관대)에서 살기도 했다. 율곡은 봉평에서 잉태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임당이 강릉에 있는 홀어머니를 떠나 한양으로 올라가게 된 것은 결혼 후 이십여 년이 지나서이며 이때 여섯 살 율곡도 오죽헌을 떠나 한양 본가로 올라오게 되었다. 즉, 사임당이 대관령을 넘으며 홀로 계신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지었다는 시는 오늘날 결혼한 여성의 생활에 비추어 보면 나오기 어려운 시다.

율곡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모두 혼례를 치른 뒤 시댁이 아닌 친정에서 더 오래 머문 것을 보면, 이러한 관습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장가간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 남자가 혼인한 후에는 일정 기간 처가에 머물면서 살기도 했던 것 같다. 율곡도 스물두 살에 성주 목사를 지낸 노경린이란 분의 딸과 혼인했는데, 혼인 후 율곡은 성주에서 지내다가 스물세 살에 안동으로 퇴계를 찾아가 만났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조선 전기에는 혼인 후의 친정살이 또는 처가살이가 일반적인 관습이었으며, 그것이 율곡이 살던 시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울곡 선생의 묘소

울곡과 어머니 사임당의 묘소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자운서원의 한편에 자리하고 있다. 울곡의 묘소가 있는 산자락 아래에는 신도비가 서 있는데, 이 신도비는 이항복이 글을 짓고 김상룡이 글씨를 쓴 것이다.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로 유명한 이항복은 권율 장군의 사위로서, 임진왜란 때 병조 판서를 지냈으며 광해군 때는 영의정까지 올랐다. 또한 김상룡은 인조 때 우의정을 지내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때 종묘에 있던 신주를 받들고 빈궁과 원손을 수행하여 강화도로 피난했다가 강화도가 함락되자 화약에 불을 질러 자결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울곡과 사임당의 묘를 보면, 그 위치와 모양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울곡의 묘가 맨 위쪽에 있는 점이다. 즉, 합장한 부모 묘 위쪽에 울곡의 묘가 있다. 또 울곡의 부인 노씨의 묘는 합장도 아니고 쌍분도 아닌 형태로 울곡 묘보다 조금 위쪽에 이어서 자리 잡고 있다. 자식의 벼슬이 높으면 아버지보다 위쪽에 묘를 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풍수에서 말하는 역장묘逆葬墓라 할 것이다. 한 가족의 묘를 쓸 때 후대가 선대보다 높은 자리에 자리하게 되면 불경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 율곡 당시까지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다. 그것은 율곡의 친구이며 동향인 성리학자인 우계나 예학의 거장이라는 김장생, 그리고 이정구의 묘도 역장임을 보아 알 수 있다. 풍수에서 역장을 금기시하기 시작한 것은 유교적 질서가 완성되는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부터다. 가부장적인 질서나 남존 여비의 관념, 가족묘인 선산이란 개념도 이때부터 생겼다.

부부이면서도 합장도 아니고 쌍분도 아닌 형태로 붙어 있는 부인 노씨의 묘에는 사연이 있다. 율곡은 슬하에 이남일녀를 두었다. 부인 노씨는 딸만 하나 낳았지만 불행히도 어릴 때 죽고 그 뒤로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율곡은 소실을 두었는데, 첫째 소실인 김씨도 처음엔 아이를 낳지 못하여 다시 소실 이씨를 두었다. 그 후 이씨가 맏아들(율곡 39세)과 딸을 낳았으며 김씨가 둘째아들(율곡 44세)을 낳았다. 그래서 율곡이 별세했을 때 두 아들은 각각 11세와 6세의 어린아이였다. 이 아이들을 노씨 부인이 정성스레 키웠다고 한다. 위로는 시서모를 모시고 두 소실과 함께 그 소생인 아이들까지 거느린 노씨 부인의 마음고생에 짐작이 갈 것이다.

하지만 노씨 부인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이들과 조카들을



피난가게 한 다음 몸종과 함께 신주를 모시고 울곡의 묘 곁으로 갔다. 거기서 왜적을 만나 살해당했다고 하며, 난리가 끝나고 후손들이 묘에 왔다가 울곡의 묘 옆에 있는 두 구의 유골을 발견했지만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어 울곡의 묘 옆에 두 유골을 모아 묘를 쓴 것이라 한다.



울곡의 사랑 이야기

울곡의 부인이 세 명이나 되니 혹자는 울곡의 여성 편력을 떠들 수도 있겠으나 그 사연은 앞에 말했다. 다만 울곡에게 아름다운 로맨스 이야기가 전하니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당시 황해도 황주에는 유지柳枝라는 기생이 있어서 울곡을 흠모했고, 울곡도 그녀를 귀여워하여 여러 차례 함께 어울리기도 했으나 특별한 남녀 관계로까지지는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기에 울곡의 여자에 대한 태도는 아주 담백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황해도와 울곡은 각별한 인연이 있다. 울곡의 장인은 성주 목사를 지낸 분이지만 평안도 숙천 부사를 지내다가 물러나 해주에서 은거해서 살았으며 울곡은 자주 처가 왕래를 하였다. 그 처가 동네의 북쪽 계곡이 바로 울곡의 은거지이자 고산 구곡가의 현장인 석담이다. 또 울곡은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했고 둘째누이의 남편인 윤섭의 집이 황주로서 울곡이 거기에 여러 번 간 적이 있다. 그 누이의 묘도 거기에 있다. 그리고 원접사로서 명의 사신을 영접하느라 왕래하는 사이에 황해도를 거쳐 가기도 했다. 아마 그러는

중에 황주 기생 유지와 어울리게 되었을 것이다.

유지는 율곡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황주에서 해주로 건너와 선생을 모셨던 것 같다. 율곡이 유지의 머리를 얹어 주지 않자, 시정 남정네의 유혹에 시달리던 유지가 율곡에게 사랑해 주기를 청하기도 했는데, 이때 율곡이 시를 써 주었다고 한다. 한편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 해에 율곡이 황주의 누님에게 문안을 가서 유지와 여러 날 어울리다가 헤어져 돌아왔는데, 율곡을 잊지 못한 유지가 밤중에 율곡리 마을로 선생을 찾아왔다. 이에 선생은 유지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를 써 준 것이 지금까지 남아 전한다.

그 시에서 율곡은 “지나는 이들이 내가 혹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나 의심하여, 저를(유지를) 돌아보아 주지 않는다면 국중일색이 아깝겠구나. 그래서 시를 지어, 사실을 적어, 정에서 출발하여 예의에 그친 뜻을 알리는 것이니, 보는 이들은 그리 짐작하시라”고 밝히고 있다.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면 율곡이 감정도 없는 도인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글 뒤에 덧붙인 시를 보면 율곡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예쁘게도 태어났네, 선녀로구나.
서로 안 지 십 년, 뜻이야 많았지.
둘 같은 사내기야 하겠나마는
병들고 늙었기로 사양함일세.



멀리 헤어지니 쌓인 정 아쉬워도
서로 만나 친한 얼굴일 뿐
다시 나면 네 뜻대로 하고 싶지만
병들어 마음마저 재처럼 식었네.
길가에 핀 꽃 아깝기만 해
운명은 언제나 배항을 만날거나.
그 돌처럼 같이 신선 될 수 없으니
헤어지며 시나 주는 미안함이어.

이 일은 여러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된 것 같다. 율곡의 세 살 아래 벗인 최립이란 사람은 이 시의 첫 수에서 운을 따서 시를 짓기도 했다. 또 박세채의 『남계 견문록』에 따르면, 율곡이 세상을 뜨자 유지는 서울로 달려와 곡을 하고 삼년상을 입었다고 한다.



‘십만 양병설’에 대해

울곡은 조정에 나가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십만 양병설’은 임진왜란 때 조선이 위기에 처했던 경험과 결부되어 ‘유비무환’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다.

십만 양병설에 대한 기록은 『울곡 연보』 계미년(선조 16) 4월조, 김장생의 지은 『울곡 행장』, 이정구의 『울곡 시장諡狀』, 이항복이 찬술한 「울곡 신도비명」 등과 『선조 수정실록』 임오년(선조 15년) 9월조 등에 나와 있다. 하지만 이울곡의 십만 양병설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는데, 그 요지는, 애초의 『선조 실록』에는 그런 기록이 없으며, 『선조 수정실록』의 기록과 『울곡 연보』의 기록 사이에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울곡의 다른 어떤 군정 개혁책에도 그러한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이다. 한마디로 『선조 수정실록』의 십만 양병설은 인조반정 이후 정권을 장악한 서인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연보』 등의 기록도 같은 맥락에서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재반론은 십만 양병설을 주장했다는 개관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인의 조작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율곡이 평소부터 양병책을 포함하는 군정 개혁안을 구상하고 제기했으며, 말년의 병조판서 재임 시에는 양병 계획을 세워 오라는 선조의 명을 받아 「육계조(六條啓)」를 올리고 그 가운데 “만나 뵈고(面對) 아뢰겠다”는 언급이 있는 등 십만 양병설을 폈을 개연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지나치게 군병을 많이 기르려 한다는 반대론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율곡이 실제로 십만 양병설을 펼쳤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조선의 형편상 그것이 실제로 가능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군사제도는 지금처럼 상비군 제도가 아니었다. 조선은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에 입각한 병농 일치 체제였다. 하지만 양반계층이 사실상 군역에서 제외되고, 천민계층도 때로 특수병에 뽑히게 되는 경우 외에는 군역에서 제외된 까닭에 군사력의 주류는 역시 절대 다수인 농민(農民)이었다. 병농 일치의 문제점은 군사를 항상 무장시켜 주둔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른바 호·보(戶·保)(조선 후기 군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베나 무명을 거둬) 제도를 두었다.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근무하러 가게 되면 근무 대신 포(布)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임진왜란 이전 조선은 중앙에 오위(五衛)와 금군(禁軍)(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경비하던 군대(이) 있었고, 지방에는 중요한 지점을 방어하는 진관(鎭) 체제가 형성되어 있었다. 진관 체제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방위도 한다는 원칙 아래 전국을 방위 지대로 조직·편제한 것이었으나, 많은 적이 침략해 올 때는 오히려 군사력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정병의 군역 부담이 커지자 도망가거나 떠돌아다니는 양인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을 대신 내보내는 폐단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 15세기 중엽부터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를 실시했으나 이는 포를 내고 군역을 지지 않는 장정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사실상 군사 조직이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허약해진 방위 체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군사를 총동원하여 대적하는 제승방략(制勝方略)이라는 방책을 북방에 실시하게 된다. 임진왜란은 이 제승방략을 실행하려던 첫 해에 일어났다.

성종 8년(1477) 병조에서 파악한 군적에 따르면, 당시 조선의 군대는 13만 4973명으로 나와 있으니 그로부터 100년 후인 율곡 당시에도 20만 명이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포만 내고 군역에서 빠지는 자가 많았기에 실제 숫자는 그에 훨씬 못 미쳤을 것이다. 더구나 그 구성원도 농사를 짓다가 근무할 때만 동원되는 까닭에 제대로 된 전투력을 갖추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율곡 이전에도 이언적이 군정 개혁론을 주장했으며, 율곡의 개혁

론도 변방 장수의 침략을 제거하고, 군적의 정비를 단행하여 군병을 보강하여 훈련을 시키자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십만 양병설은 말하자면 편제상의 병력보다 숫자를 줄이는 대신 전투력이 있는 군대를 만들자는 제안인데, 문제는 당시의 재정 형편에서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 정도의 숫자는 당시 조선에서 모을 수가 있었겠지만 그만큼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농업국가 조선의 생산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울곡의 십만 양병설을 ‘선견지명’이라고 사람들이 일컬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식량 조달을 예로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익에 따르면 병졸을 기르려면 식량이 있어야만 되는데, 한 사람에게 필요한 식량을 하루에 두 되二斗로 볼 때 10만 명이면 하루에 1,330석, 1달이면 4만 석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여기에 기병이 포함된다면 말을 먹이기 위한 꼴과 콩이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또한 군대가 이동할 경우 소나 말 1필에 20말을 싣는다고 하면 하루치의 식량을 싣는 데도 1천 필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모는 사람도 1천 명이 필요하니 10일 간의 거리를 행군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식량을 계산할 수조차 없다고 구체적으로 논박하고 있다.

이처럼 울곡의 십만 양병설을 이야기하려면 단순히 군사력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까지 염두



에 두어야만 한다. 필요한 군사를 징병하는 일, 그 군사를 먹이고 재우는 일, 필요한 곳에 주둔시키며 훈련시키는 일, 나아가 그로 인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 등은 국방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관련된 일이었다. 그러나 10만의 정규군이 항상 대기하는 형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군적에 기록되어 있던 13만이나 20만이 장부상에 숫자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질화시키자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십만 양병설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